

로버트 야브러 박사, 요한서신, 제 6차시, 요한일서 전체 규모의 믿음, 2절 [2:7-17 중심 계명], 3절 [2:18-3:8] 핵심 조언

로버트 야브러 박사님의 요한서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균형"에 대한 강의입니다. 6차시, 요한일서, 완전한 믿음입니다. 2절 [2:7-17], 중심 계명입니다. 3절 [2:18-3:8], 핵심 권면입니다.

요한일서 강의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며, 저는 이 시리즈를 "요한서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균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는 복음 말씀 사역을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상호작용과, 그 믿음이 어떻게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또한 사람들을 관계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사람들이 추상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믿더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길, 그의 계명,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의 순종이 자랍니다. 그것들은 자라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현실 감각도 자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 행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균형 잡힌 삶입니다. 그리고 이전 강의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의 핵심적인 부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담은 하나님과 그분의 존재, 그분의 성품, 그분의 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고 요약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면에서 어둠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상황에 대해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처한 사람들, 즉 회중들이 하나님의 빛을 누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거나 하나님을 거스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특정 강의 에서 저는 다음 두 부분을 다루고 싶은데, 위 표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절은 2장에 있고, 3절은 2장을 마무리하고 요한일서 3장으로 넘어갑니다. 2절의 첫 단어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 글을 쓰고 있다"입니다. 제가 중심 계명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은 오래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중심 부담에 대해 이야기하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중심 계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 즉 이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요한이 전하는 핵심적인 권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를 묘사하고 권면하지만, 서신의 핵심을 이루는 매우 특별한 조언들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적인 삶에 대한 조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두 번째 부분의 첫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중심 계명이며, 오랜 세월 이어져 온 메시지를 다루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파란색으로 칠하겠습니다. 저는 파란색이 이 제목들을 요약하고 구분하는 데 유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2절, 중심 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래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구절들을 읽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빨간색 글씨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으며,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신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 드문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에서 너희가 가졌던 옛 계명, 아니 어찌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새 계명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 계명은 그에게도 참되고 너희에게도 참되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이미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거기에 신성에 대한 간접적인 언급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참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에게 참되며, 그들 안에서도 참되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이미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 여기서 형제는 동료 신자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빛 안에 거하는 자는 걸림돌이 없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행하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들에서 메시지의 본질과 함의를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 메시지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 메시지는 구약성경에 선행하며,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죽음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그 계명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천 하셨습니다. 가장 큰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당연한 귀결로, 예수님께서 두

번째 큰 계명도 첫 번째 계명과 마찬가지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새롭지 않지만, 동시에 새롭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고 그들에게도 참되다는 점에서 새로운 의미로 참된 메시지입니다. 칸 바로 위에 구절들을 배치하기 위해 이 부분을 조금 더 줄였습니다. 8절에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당신 안에서 참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세요.

구속의 진행으로 인해 새로운 방식으로 참되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전반에 걸쳐 세상을 구속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펼쳐지고 있으며, 성경은 때가 차서,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가르칩니다. 구속으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펼쳐짐에 따라, 점진적으로, 우리는 은혜의 방사선이 세상으로 퍼져 나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요한이 말하는 내용이 다른 성경 저자에게서 더 명확하게 언급되는데, 그러한 구절을 찾을 수 있을 때면 저는 그 구절들을 살펴보는 것을 꺼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구절은 로마서 13장인데, 요한은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이미 비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에 잘 보이도록 크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잠에서 깨어날 때가 이르렀음을 아나니,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이제 우리에게 더 가까웠느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어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낮에 행하는 것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함이나 음란과 호색이나 다툼과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는 요한이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이미 비치고 있다고 말했을 때의 의미를 확장한 것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진전되었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교회를 통해 계속되고 있으므로 새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새로운 날입니다. 9절과 관련하여,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말은 같지만 행동은 다르다는 말씀이 요한이 이전 구절들에서 이미 언급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더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이것이 요한일서라고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더 깊이 읽어갈수록,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얘기 전에도 들어본 적 있지 않은가?"라고 묻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같은 내용을 여러

각도에서 반복하며, 조금씩 다른 요점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바로 이 구절에서 우리는 그 반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앞서 언급된 어둠 속을 걷는 것과 형제를 미워하는 것
 등에 대한 이야기 만을 반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구절 안에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단절에
 대해 읽어보겠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서로에게 말을 끊거나, 요한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일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대화하거나 편지를 쓰는 교회들의 문제로 보고할 내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복음서가 독자와 요한의 청중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합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행하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둠은 그의 눈을 멀게 합니다. 이것이
 빛이신 하나님의 본질이며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빛과 생명을 주십니다. 저는 그분이 빛
 안에서 생명을 주신다고 생각하지만, 그분의 아들을 거부하는 자들은 어둠
 속에 남겨집니다.

이것이 요한이 메시지의 본질과 그 함의에 대해 전하는 가르침입니다.
 옛것이면서도 새로운 것입니다. 메시지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빛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문제를 연구하다 보면, 증오의 한 형태가 무관심, 즉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이 글을 읽으면 "이건 나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야.
 난 누구도 미워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의
 핵심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부르심은 이웃에게 중립적이거나 무관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괜찮을 것입니다. 그래서 존에게 사랑 아니면 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라는
 계명을 따른다면, 그것은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해야 할 일이나 해야 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은 미워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지역 에 심한 폭풍이 몰아쳐 우리 땅에 나무가 많이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이웃 한 분이 오셨는데, 땅도 넓고 나무와 숲도 많고 도로도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나무가 쓰러졌어요. 제 길로 쓰러질지도 몰라요. 점점 더 낮아지고 있지만, 남편과 제가 처리할게요.”

그리고 저는 그녀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아내와 저는 떠났다가 돌아왔는데, 길 건너편 그들의 부지에서 그녀의 남편과 그녀가 스키드 스티어 기계와 몇 가지 공구를 가지고 나와서 길 위로 쓰러진 나무를 제거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음, 아내는 그들이 처리해 주겠다고 했고, 저는 제 나름대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잖아.”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

하지만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만약 이웃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웃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일에 대해 어떤 강한 감정도 품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녀가 자기 일을 잘하는 건 꽤 기뻐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제 도구들을 가지고 그곳으로 갔는데, 알고 보니 그 도구들은 그녀의 능력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큰 나무였죠. 도로에서 옮길 방법이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인간의 자존심 때문에, 가끔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는데 , 마침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들어오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길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가서 길에서 나무를 잘라내는 걸 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인들, 즉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 문제에 대해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부분 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심 계명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메시지의 본질과 함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메시지를 바탕으로 한 목회적 호소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 구절에서 저는 하나님을 이름이 아닌 대명사로 지칭하는 몇 단어를 녹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자, 이것은 목회 지도자 존이 독자들에게 드리는 호소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의 죄가 그분의 이름 때문에, 혹은 그분의 이름들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

나는 당신 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들에게 쓰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요. 젊은이들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요. 자녀 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쓰는 것이다 .

나는 당신 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들이여, 너희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느니라. 내가 청년들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도 그의 정욕과 함께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것이 목회자의 호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칭찬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당신 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 이것들은 그가 말해야 할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그것은 신자들이 메시지를 실천하고, 효과적이고 성실하게 메시지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성품에 뿌리를 두면서 영적 성숙이나 육체적 성숙, 또는 둘 다의 대표적인 단계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모든 부분에서 그의 근본적인 동기 중 하나는 독자들에게 사랑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사랑 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고 , 이제 사랑 에 대해 더 이야기할 것입니다 . 하지만 존이 원하는 대로 사랑하려면, 당신과 당신의 삶, 그리고 당신의 성품에 대해 확실한 사실들이 있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즉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대로 사랑하려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 죄에 짓눌려 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애시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아이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들을 어린 신자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들을 새로운 신자라고 생각 합니다 .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압니다. 그리고 이것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죄가 용서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당신 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아버지들은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 앞서 살펴본 상자에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Z 좌표가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언가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셨고 , 이제 그들은 하나님과 대화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과 대화합니다.

운전 중이거나 밤에 잠 못 이루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머릿속에는 대화가 오갑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대화 에 개입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 하나님께 할 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계신 하나님, 과거에 누가 계셨는지 말하지 마세요. 지금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는 존재하십니다. 그는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는 위대하고 장엄하며 헤아릴 수 없는 초월적인 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그를 압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는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 아이들에게로 돌아옵니다.

너희는 아버지를 안다” 라고 말합니다 . 그리고 그는 “너희는 처음부터 그가 누구인지 안다”라고 아버지들에게로 되돌아옵니다. 그들에 대해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도, 그는 말합니다. “뭔가 똑같은 효과가 있는데, 조금 다르죠. 여러분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 성경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마귀가 자신들을 사로잡았던 것과
결별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들은 젊은, 늙은, 아이든, 아버지든, 젊은
사람이든, 각자의 인격적 특성을 칭찬합니다. 물론 남성적인 표현이지만,
여성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편지는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각기 다른 시기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특정한 행동과 반응을 끊임없이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알고, 무엇에 영향을
받고, 무엇으로 변화되도록 준비시키는데 대한 훌륭한 성품 묘사입니다.

6절, 15절, 16절은 선행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종류의 사랑은 규모를 묘사합니다. 마치 초점을 묘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앞서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계명과 같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참된 사랑, 경외, 공경은 배척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구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위대하시기에 모든 경쟁자를
쫓아내십니다. 따라서 그분 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을 다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선행 명령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만약 누구든지 세상에 궁극적인 애정을 둔다면, 분명 그의 궁극적인
애정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을 의미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사랑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잘못된 정도로,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한다면,
그것은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갈망 대신, 우리의 확신을 하나님께 두는 대신,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풍부한 의미를 지닌 단어들을 번역하려는
시도입니다.

인생의 자람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람'이라는 단어는 때때로 "허영"으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다소 특이한 단어죠.

그리고 거기에서 생명을 뜻하는 단어는 영생과 관련된 '조에'가 아닙니다. 영생은 우리가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활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명을 뜻하는 단어는 '바이오스(bios)'입니다. 여기서 생물학(biology)이라는 단어가 유래했죠. 이런 의미에서 바이오스는 일상생활을 의미합니다.

생계를 위해 일하고, 벌고, 쓰고, 소비합니다. 바로 물질적인 삶이죠. 그래서 이 표현, 물질적인 삶의 허영심은 우리 모두, 아니 적어도 우리 대부분은 알고 있듯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젊고 강하고, 어찌면 구매력이 있고, 친구들이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자기소개, 일상생활, 생계 유지, 주말 생활, 콘서트 관람, 파티, 축하 행사. 운동선수일 수도 있고, 홍보 담당자일 수도 있죠.

어찌면 당신은 음악가일지도 몰라요. 인간의 활동은 영광스러운 것이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신처럼 대한다면, 그건 정말 공허한 거예요.

진정한 의미는 없어요. 나이가 들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건강이 악화되면 갑자기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삶의 즐거움과 자부심을 추구하는 삶 때문에, 그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게다가, 그것이 반드시 풍요롭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결혼 생활이 파탄 나는 이유는 부부 중 한 명이 진정으로 함께하고 서로를 위해 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파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파티를 하고 싶어 합니다. 만약 당신이 파티만 하고 싶어 하거나, 그게 당신의 주된 목표라면, 지금 하고 있는 파티를 넘어서는 누군가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준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는 사람들이 인생을 파티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이렇게 결정 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세상을 좇던 방식과 결별하고 싶다." 세계는 전부였습니다. 요한은 이 구절의 마지막 구절에서 세상이 지나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위한 수고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마치 세상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처럼 세상에서 행하는 일들, 우리가 하는 일들은 지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끝없는 가치와 끝없는 유익을 가져다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읽어보시면, 바울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의 모든 행위가 시험을 받을 것이며, 어떤 것들은 시험을 견뎌낼 것이고, 어떤 것들은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는 단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위는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변함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몇 분 안에 세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218장에서 3장 8절까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아, 마지막 때이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애정 어린 목회적 설교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핵심적인 권고라고 부르는 것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 권고는 바로 그분의 기름부음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름부음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습니다. 이 부분은 A, B, C, D로 나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 권고를 받아들이라는 권고를 뒷받침하는 몇 가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자녀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들었듯이, 적그리스도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다면, 우리와 함께 계속했을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교회, 즉 우리가 교회 분열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간 것은, 그들이 모두 우리에게 속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기록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너희는 모두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진리를 알기 때문이고, 어떤 거짓도 진리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구절에서 몇 가지 추론을 해 보겠습니다 . 첫째 , 악과 심판이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요한이 이 서신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는 신앙 공동체에 분열이 생겨 위기에 처한 시대에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2서에서 그는 사람들이 사도적 가르침과 삶의 경계를 벗어나 나아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의 양상입니다.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그들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메시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이 하늘에서 온 천사나 바울 자신이 처음 복음 메시지와 다른 것을 전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받아들여진 메시지가 참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진실성은 편을 바꾸지 못하게 합니다. 그는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거룩하신 분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 위 파란색 구절의 요점을 기억하십시오. 핵심적인 권고는 그분의 기름 부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름부음을 통해 모든 지식을 얻었습니다. 아니, 죄송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모든 지식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기에 글을 쓰는 것은 그들이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에게 거짓을 전가하는 것을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속하는 진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진실은 무엇일까요?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분명히, 떠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본성에 관해 요한과 의견이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곧 아버지 와 아들 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 도 있습니다 .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처음부터 들은 것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여러분도 아들 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

그리고 이것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속이려는 자들에 관하여 이 글을 씁니다. 제

생각에는, 그들은 떠나간 사람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남았고, 요한은 그들을 알아보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그는 떠난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실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들을 참된 직설법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분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십니다. 어떤 이들은 창세기 3장 15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여자의 후손, 즉 뱀의 후손이 멸망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뱀의 머리와 그의 씨가 부서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한 진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기독교적 진리입니다 .

어떤 면에서는 다른 것으로 왜곡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건 더 이상 진실이 아닙니다. 거짓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면, 이는 우리가 시도해 볼 만한 새롭고 신선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이는 적그리스도, 즉 영과 의인화의 현현입니다. 이 경우에는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종교적 신념으로 예수님을 실제로 오셨고 지금도 실제로 존재하시는 모습, 즉 아버지와 하나이신 모습으로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직설법에서 논리적인 명령이 뒤따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라면, 24절에서 처음부터 들은 것을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도 아들 안에 거하리라 .
처음부터 들은 것이 아들을 너희에게 전하였느니라. 너희가 그 안에 거하면 아들 도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도 아들 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대로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는 바로 영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떠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 영생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는 영생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무한한 미래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라는 개념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촉구하심으로써 이 영원한 것에 더욱 깊이 들어가십니다.

저는 그것을 '거하라'는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이 그분에게서 받는 기름부음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잠깐 여기서 멈추고,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기름부음이 성령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우리 안에 거하는 모든 축복은 분명히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임재입니다.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지역성과 존재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름부음에는 분명히 성령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름부음은 우리에게 성령을 전달하는 복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름부음은 성령이 아닙니다. 기름부음은 복음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우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본질이 있습니다. 단순한 종교적 직관이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 그리스도의 메시지,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당신이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당신 안에 거한다고 가르칩니다. 성령께서 전하시는 복음의 진리가 당신 안에 거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누구의 가르침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에게 가르치신 그대로니, 그 안에 거하라. 어린아이들도 그 안에 거하는 것은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갖고 그의 강림하실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심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확신할 수 있느니라.

기름부음의 능력을 봅니다. 27절에서 기름부음은 우리를 누군가에게 모든 면에서 인도받아야 한다는 노예적인 의존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는 당신이 그런 의존에서 해방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세세하게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식으로 당신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기름부음이 당신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가르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 함께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떠난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거짓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기름부음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세요. 계속 연결되세요.

계속해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당신이 시작한 일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이루시는 일에 계속 반응하십시오. 믿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매우 강력한 은혜와 유익, 곧 하나님 말씀의 기름부음,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부음과 거함에는 유익과 표징이 있습니다. 기름부음과 거함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익은 곧 찾아오는 확신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도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서는 "준비하라"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인자는 너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오십니다. 그러므로 준비된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재림을 위해 준비되지 않은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요한은 기름부음의 유익이 확신이며,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생각에 겁먹거나 위축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을 확신해도 좋습니다.

그러므로 기름부음의 표징은 경건함을 추구하는 것, 곧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거함의 영광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 보십시오. 우리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거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분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나 그리스도께 눈을 돌리면 어떤 변화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이와 같이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죄는 불법입니다. 여러분은 그가 죄를 없애 려고 나타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은 누구든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그를 본 적도 없고 아는 적도 없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의 의로움과 같이 의롭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 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지어 왔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으로 이 장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핵심적인 교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분의 기름부음 안에 거하며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들은 거의 스스로를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첫 구절은 신자들이 무엇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머물러야 하는지에 대해 경이롭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처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께서 베푸신 사랑과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는 지위를 바라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그것을 모르거나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고립시키는지, 하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고 싶다면, 낙인찍힐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어서 신자들의 소망과 응답에 대해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소망은 그분의 나타나심에 있으며, 우리의 응답은 우리의 순결함 안에서 자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사람들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거하는 것의 열매, 즉 죄로부터의 자유를 묘사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그보다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나타나셨습니다. 거하는 것의 열매는 죄와 멸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맥에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거나 죄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번역, 현대의 대부분의 번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4절이나 8절에서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를 짓다. 그리스어로는 '죄'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죄를 계속 짓는다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자들은 죄를 짓는 모든 사람을 현재 진행형으로 보고 해석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요한이 이처럼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며 죄가 곧 불법이라는 것에 대해 절대적인 용어로 이야기할 때, 그는 이 서신에서 경고하는 의미에서 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믿음은 사랑 안에서 역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단자가 되어 말씀을 믿지 않거나, 율법 폐지론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마음이 완악해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등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질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믿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자, 존은 이미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변호자가 있다고 썼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일종의 죄짓는 행위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는 그것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심지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을 보면,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다시 말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을 때처럼 서로를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세상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헌신의 수준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교리, 계명, 거룩하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우리를 그분과의 관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에 대한 헌신이 아닙니다.

그가 죄를 짓는 모든 사람이 불법을 행한다고 말할 때, 제 생각에는 그런 종류의 죄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경고하는 의미에서의 죄 말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길로 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길로 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길로 가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 다 효과가 있죠. 아시다시피, 죄짓는 것과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니 죄를 지었다면 자백합시다. 그리고 죄에서 떠나도록 합시다. 그분은 죄를 없애기 위해 오셨습니다.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 우리 삶에서 그들을 몰아내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한다면,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든 죄는 그리스도인의 친구가 아니며, 요한은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믿음과 행함과 사랑의 측면에서, 복음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해 주며, 이는 죄의 존재와 영향을 점차 경감시킵니다. 이것이 로버트 야브러 박사와 그의 요한 서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균형』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로버트 야브러 박사님의 요한서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균형 잡힌 삶"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6차시, 요한일서, 완전한 믿음입니다. 2절 [2:7-17], 중심 계명. 3절 [2:18-3:8], 핵심 권면.